‘경영이양 보조금’ 대폭 확대

지급 연령 늘리고 대상 농지도 밭·과수원 포함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종원)는 지난 9일부터 고령(65~70세)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이양 보조금 제도’를 확대·개편했다.

‘경영이양 보조금사업’은 고령의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나 젊은 전문 농업인에게 농업경영을 이양하면 고령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매월 보조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지급연령도 현행 70세에서 75세까지 최장 10년간으로 지급기간을 늘렸다. 또 기존 매도중심에서 매도와 임대를 동일한 조건으로 1ha(1만㎡)당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대상농지도 진흥지역내 논에서 논·밭·과수원으로 확대되고, 은퇴후에도 자급을 위해 3천㎡이하의 농지는 경작이 인정된다.

특히 고령 농업인들이 2010년까지 매도 이양을 할 때에는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세에 대해 10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의(062-958-2342) /송기동기자 song@

‘가로청소용 리싸이클 핸드카’ 발대식 광산구는 13일 청사앞 광장에서 ‘가로청소용 리싸이클 핸드카’ 발대식을 가졌다. ‘리싸이클 핸드카’는 손수레를 변형시켜 만든 제품으로 각종 쓰레기 중 재활용품을 현장에서 바로 분리해 따로 담을 수 있다. 〈광산구 제공〉

일손 필요하면 ‘농업 인력뱅크’ 두드리세요

담양군 농기센터

담양군이 농촌 일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농업 인력뱅크’를 운영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노령화에 따른 농촌 노동인력은 감소하는 반면 연중 일손이 필요한 원예·과수농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지난해부터 인력뱅크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군 농기센터는 지난해 한해 관내 181농가에 599명의 인력을 제공해 적기에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줬다.

인력뱅크 운영을 위해 군 농기센터는 각종 소식지와 읍면장 회의를 통해 관내 유휴인력을 모집하고 홈페이지 홍보 등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확보해왔다.

또 광주광역시 북구청 취업정보센터와 순창군 여성취업센터와 연계해 인근 지자체의 관외인력도 확보했으며 장기고용을 원하는 농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도 대행해준다.

인력뱅크에 관한 자세한 문의와 접수는 군 농업기술센터 인력지원담당(061-380-3412~3)이나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로 하면 된다. /담양=노정훈기자 cjob17@

완도 3개 정보화 마을 1억5천만원 운영 실적

완도군에 조성된 3개 정보화 마을이 지난 2004년 조성 이후 최고의 운영실적을 거뒀다.

15일 완도군에 따르면 2004년 금당도 갯벌섬 마을을 시작으로 2005년 완도 개매기 마을, 2007년 보길도 예송마을에 조성된 3개의 정보화 마을은 지난해 1억5천만원의 특산품 판매실적을 올려 도내 시·군 중에서 가장 많은 3천600만원의 운영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정보화 마을은 행정안전부가 2001년부터 농어촌지역 정보화와 소득창출을 위해 특산품 전자상거래, 체험관광 등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조성하는 사업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 종 해 보성군수

보성녹차·벌교꼬막 고부가산업 육성

“올해는 그동안 추진했던 각종 대규모 사업들이 성과를 보이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을 펼쳐 보성군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해로 만들겠다.”

정종해 보성군수는 14일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살리기, 투자유치에 군민과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교산단 조기 착수

정 군수는 “투자를 하루 빨리 시작하면 그 성과는 1년 빠르게 나타나는 만큼 벌교 산업단지와 조성 농공단지 등 관내 대규모 사업들을 조속히 착수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 군수는 국가사업 계획에 반영된 녹차생태공원 조성과 율포 종합휴양지, 산림생태체험단지 조성 등 신규사업도 군민의 뜻을 모아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맞춰 숲가꾸기사업 등 새로운 녹색 일자리 창출에 160억여원을 투입해 지역경제와 환경을 동시에 살릴 계획이다.

행정조직도 상반기에 일과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해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해에는 보성군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는 농어업 관련예산을 활용해 농업인에게는 육묘용 상토와 유기질 비료, 보온 커튼 등 꼭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맞춤형 농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율포 종합휴양지 구체화

또 지난해 전남 최우수 쌀과 전국 우수쌀에 선정된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보성녹차’ ‘보성삼베’ ‘벌교꼬막’ 등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 파워를 주민의 소득과 연계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 군수는 올해 교육여건을 갖추는 데에도 전력하기로 하고 보성의 인재들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장학기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100억원의 기금조성운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정 군수는 “관광 인프라도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보성의 전통문화 유산을 의향·예향·다향·문향의 4대 테마로 나눠 역사와 문화, 휴양과 레저가 어우러지는 세계 속의 관광지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녹색 일자리 창출 100억

사회복지 부문예산도 지난해보다 75억원 증액한 376억원을 편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노인복지 인프라를 확충해 실버산업을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로 했다.

정 군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보성을 풍요롭고 희망차고 아름다운 문화가 숨쉬는 고장으로 만들자”고 군민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보성=선상근기자 sun@

나주 동수·오량·봉황 농공단지 기계·음식료 미니 클러스터 조성

전남 시범지역 선정

나주 농공단지가 기계·음식료 산업부문의 산학연계 시범클러스터(집적화) 단지로 개발된다.

1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대불클러스터 추진단에 따르면 나주 동수·오량·봉황 농공단지에 ‘기계·음식료 산업 미니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추진단은 30여개의 나주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기술 개발과 특허출원, 자금지원 등을 도울 예정이다.

‘미니 클러스터’ 사업은 국가산단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산학공동사업을 지역농공단지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전남지역에서 나주 농공단지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추진단은 나주 농공단지 시범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 새 얼 굴 /

“친환경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주력”

박 윤 식 함평 부군수

“함평군의 더 큰 도약과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일 취임한 박윤식(56) 함평군 부군수는“친환경 생명 농·수·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 군의 역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담양 출신인 박 부군수는 지난 1976년 담양군 수북면에서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뒤 전남도 관광기획담당, 투자 1담당, 계약담당, 행정과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남정덕씨와 사이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며, 취미는 등산.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